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자리해야 완성

2024년 10월 11일 서울공예박물관 앞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다. 패널을 펼치고 전도를 시작하였다. 서울공예박물관 정면에 꽃밭이 새로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줄지어 오가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패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발길을 멈추는 자 하다가는 일행이 불려서 가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반강제로 권유하여 커피를 대접하고 사람을 붙들어 두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다가 반대편에서 5대 공약 패널을 응시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아직 존재하는데 무슨 공산주의가 없어졌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네 물론 아직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소련 공산주의와 미국 민주주의로 대립하던 이데올로기 식의 공산주의는 없어졌지요

보십시오. 당장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고 지금은 여러 국가로 분열되었지요. 또한 구 소련의 주축인 러시아의 정치구조가 서시장 제도에서 대통령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를 고집하다가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하며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산주

의라고 할 수 없지요. 북한 또한 어떻게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국이나 북한은 무늬만 공산주의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이 맞지요.”

문: 그러면 태풍은 올랐던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태풍을 막았다는 겁니까?

답: 그렇지요. 태풍이 올랐던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최소한으로 그치고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강력한 태풍인 매미가 불어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흉년이 든다고 했지만, 어김없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81년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60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올해 대한민국에 불어온 태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상 학자들이 태풍이 한국을 피해 간다고 하고 있지요.

또한 과거 80년대 이전에는 2년에 한번은 흉년이 들었지요. 과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흉년이 자주 들었으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시대입니다.”

문: 무슨 기준으로 풍년이라고 합니까?

답: 쌀이 삼천만 석 이상이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니까요. 통계청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81년부



서울공예박물관 앞에서 패널을 펼치고 전도 활동

터 계속 삼천만 석 이상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든 물난리가 나든 쌀 생산량은 삼천만 석 이상입니다. 그러니 풍년들게 하겠다는 공약도 맞는 거지요.

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이분이 5대 공약을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로 부러 우리나라에 정도령이 나타나면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고 세계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예언이 전해지고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류를 타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는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세주요, 메시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미륵불이요, 유교에서 말하는 진인이요, 격암유록이 예언한 정도령입니다. 이분은 6000년간 이어온 사망의 세상을 종식시키고 영생의 지상천국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

되었습니다.

음양은 다시 4상으로 4상은 다시 8패로 8패는 다시 64패로 64패는 다시 384호로 갈라지고 384호는 다시 우주 만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입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생성되었지요.

이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빅뱅이라고 하지요. 바로 대폭발에 의한 우주 팽창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나와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두 신을 되찾아 삼위일체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주를 원래의 상태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종교인 한얼교에서 말하는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의 원리입니다. 바로 원시반본(原始反本)입니다. 다시 하나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을 천자인(天地人)의 간괘(☰)로 표현하고 10 무극(無極)인 삼위일체가 깨어져 홀로 남은 1 무극 하나님을 6000년간 역사하여 마침내 우주를 다시 하나로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문: 저는 성경의 창조론은 믿지 않습니다.

답: 아, 그래요. 그러면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해 드리지요.

원래 무극 하나님이 존재했지요. 그런데 무극 하나님 속에 마귀인 음이 침투했지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 되었지요. 태극은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음의 신인 마귀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무극 하나님의 힘을 능가하게 되면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게

문: 무슨 우주가 6000년이라고 합니까? 지구의 나이만 45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는 적어도 150억 년 이상인데요.

답: 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우주의 나이는 사실 6,000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930억 광년의 우주로 광활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확한 나이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나 우주의 나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주 만물로 갈라진 현 주역의 우주를 다시 빅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희성님 속에서 1980년 10월 15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희성님을 삼위일체 완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1980년 10월 15일부터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즉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우주는 아직도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습니까?

답: 네 그렇지요. 눈으로 보기에 아직도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요. 그러나 측정 가능한 지구와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분명 그 거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 복두칠성 격암유록에 『상제지자(上帝之子) 두우성(斗牛星)』이라고 하였다

문: 측정 가능한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 거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100광년 200광년 그 이상 떨어진 별들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답: 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100광년 200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은 100년 200년 전의 별의 위치입니다. 우주가 수축하는 것은 불과 4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별들은 200년 300년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 이 우주는 수축하고 있습니다.

문: 맞습니다. 수축하는 우주가 맞습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희성님이 하나님입니까?

답: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희성님의 몸에서 완성되었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여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조희성님은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분으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육신의 영인 마귀가 나라는 주체 의식의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 자리에 완성의 하나님이 좌정하여 다시 우주의 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지요. 이 광활한 우주는 사람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주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 그럼 저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답: 저분은 지금 육신을 벗고 본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계십니다.”

문: 거기가 어디입니까?

답: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당이지요. 그 천당이 바로 회복된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존재이지요. 그래서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하지요.

격암유록에는 상제지자(上帝之子) 두우성(斗牛星)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복두칠성이라고 하였으니 복두칠성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 복두칠성은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7수는 완성을 뜻하는 수입니다. 복두칠성은 7개의 하늘의 별이므로 하늘의 뜻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7개의 복두칠성이 동서남북으로 자리하면 28수 별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동서남북(東西南北)에 자리한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運), 금운(金運)이 합일되어 중앙무기(中央戊己) 오십토공(五十土宮)으로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선생님과 저의 마음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하나님의 영이 완성될 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좌정할 때 사람은 사람 몸을 입은 체로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제단이 추구하는 진리이며 모든 종교의 종지(宗旨)입니다.”

그제야 그의 의식이 사라져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를 패널 앞으로



「사람 자체가 신들이며 지존자(하나님)의 자녀(시편82:6)」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자!

안내하여 외양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고조선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기왓장에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이동해 온 단지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패널의 감로 사진을 보여주며 “바로 이것이 감로이며 범성광명이며 해인입니다. 감로는 생명의 빛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신체입니다. 그러므로 감로를 받으면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감로는 어떠한 병도 낫게 하는 신기한 명약입니다. 바로 불로초와 불사약입니다.”라고 설명해주었다.

문: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빛이 들어간 사진 같은 것 말입니다.”

답: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사진 중에 제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조작하지도 빛이 들어가지도 않았지요.

문: 사진관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현상액이 묻든지 빛이 들어가든지.

답: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진관에서 거래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사진사가 인정하게 되지요. 조

작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감로가 보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면 누구나 협조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신성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승리제단을 제대로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부디 많은 사람이 승리제단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박철수 송사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